

소독약

■ 자료제공/ 건강한 이웃 편집부

세균은 열, 광선 및 삼투압 등에 의해 박멸될 수 있다. 특히 습열이 건열보다 세균 박멸력이 더욱 커 115℃의 수증기를 30분간 적용하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멸된다. 그리고 태양광선 중의 자외선은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살균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약품으로 나오는 소독약을 사용하게 된다. 흔히 쓰는 소독약의 종류와 용도를 살펴보자.

■ 과산화수소수

혈액 중에 존재하는 카탈라제라는 효소와 작용하여 생기는 발생기 산소의 산화력에 의해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다른 소독약에 비해 살균력은 약하지만 값이 싸고 무색이며 흡에 넘어져 다친 경우 특히 눈에 띄는 부위의 소독 겸 불순물을 씻어내는 효과로 가장 흔히 쓰여진다. 또 치아 미백 효과가 있어 치약에 들어있는데 에나멜질 손상의 우려가 있다.

■ 포비돈 아이오다이드(베타딘, 포비돈)

창상이나 궤양, 농양, 수술 부위에 주로 쓴다. 포비돈과 결합된 요오드에 의해 소독 효과를 낸다.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 널리 사용된다. 요즘도 빨간약(머큐로크롬)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수은 화합물이라 생산되지 않으므로 보통 이 용액을 대신 쓴다. 독성은 적으면서 살균력은 있으므로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 희석하여 질세정액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신생아 배꼽 소독에 사용되었는데 요오드가 태어나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

에 따라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소독용 알콜

신생아 배꼽 소독에는 70% 알콜을 사용한다. 알콜은 20~70%에서 살균력이 우수하므로 응급처치용의 소독제로 경상의 절상, 좌상, 찰과상, 화상의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에틸알콜은 상처부에 자극 유발로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이소프로필알콜을 권장하는데 알콜숨이나 요즘의 소독용 알콜은 대개 이소프로필알콜이다. 그러나 이소프로필알콜은 피부로 흡수율이 높아 상처가 큰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아포균과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 클로르헥시딘

창상, 수술 전후 감염예방, 의료기구 소독 및 세척에 사용한다. 무색, 무취 무자극성이다. 보철(의치)에 의한 염증, 아구창 등의 구강내 칸디다감염증, 치은염, 인두염, 아프타성 구내염 등 구강 내 염증이 가글로 사용하거나 의치를 세척하는데 사용한다.

■ 클로록시레놀(데톨 등)

주로 산부인과에서 손을 씻는데 쓰이다 요즘은 대중용 제품이 나온다. 농도에 따라 살균력이 다르다. 상처소독, 목욕, 비듬, 여드름이나 세탁 또는 집안 청소에는 물로 권장 농도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대로 사용하면 자극이 심하다. 비누나 물비누, 티슈 등의 제품이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 생리식염수